

전주시, 1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협력

전북자치도·HS효성 첨단소재 등 지역 기업들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 위해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기업들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기로 했다.

시는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공영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김동성 HS효성첨단소재(주) 전주부공장장, 박선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참여기업 5개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와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제도다. 이번 전주시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는 지자체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먼저 안성은 선경영전라연구소 박사가 강연자로 나서 기금의 조성 취지와 추진 경과, 관련 제도 및 정부 지원 내용 등을 설명했으며 참여기관 간 기금 출연 협약서



전주시는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공영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김동성 HS효성첨단소재(주) 전주부공장장, 박선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참여기업 5개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명이 진행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전주시는 2026년부터 3년간 총 6억 원을 출연하고 참여기업은 근로자 1인당 50만 원을 5년간 출연한다.

특히 HS효성 첨단소재(주)가 15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기금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이윤려 근로복지공단의 정부지원금 신청을 통해 총 4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자기계발비 지원과 명절 상품권 지급 등 참여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공동으로

조성된 복지 기금이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1호 기금 조성이 앞으로 제2호, 제3호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미래 영상산업 이끌 차세대 영상 제작기술 인재 양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고서 고교 특화 찾아가는 버추얼프로덕션 세미나 개최

전주시가 미래 대한민국 영상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영상 제작기술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하진, 이하 진흥원)은 8일 전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이 학교 재학생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영상산업을 이끌 버추얼프로덕션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 특화 찾아가는 버추얼프로덕션 (Virtual Production) 세미나'를 개최했

다.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에 선정된 '전주 영화·영상 실습역량 강화형 도제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주예술고등학교와 전주중앙고등학교, 전주완산여자고등학교, 한국계인과학고등학교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로 마련됐다.

진흥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최신 영상

기술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산업 이해도를 높여 왔다.

특히 진흥원은 대상 학교별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산업 트렌드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국내 버추얼프로덕션

분야의 현업 전문가인 △박성재 아크프레임 대표(前 에픽게임즈코리아 테크니컬 아티스트) △박지용 웨스트월드 실장이 참여해 산업 동향과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강연은 △버추얼프로덕션 기초 입문 △제작 사례로 배우는 버추얼프로덕션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프로젝트 활용 사례도 함께 소개해 학생들이 현장 제작 과정과 기술적 흐름을 보다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진학과 직무 역할, 산업 전망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탄소·수소산업 지원 참여기업 성과교류회 열려

전주시는 8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2025 전주시 탄소·수소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지난 1년간 추진된 탄소·수소기업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간 기술 교류와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수혜기업 8개사와 지역 탄소·수소기업, 전문가, 전주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성과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시가 올해 추진한 △탄소기업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수소산업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올해 △(주)하이솔 △투미컴(주) △(주)지티에이에어로스페



이스 △(주)퍼치앤글로비스 △(주)에스엠 전자 등 탄소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24회를 지원하며, 기술 기획과 인증·설계 지원, 사업계획서 고도화

등을 도왔다.

이와 함께 이날 교류회에서는 탄소·수소기업 성과 발표와 국가 R&D 투자 트렌드 특강,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성능시험장)'의 주요 기능과 정비구축 현황이 소개됐다.

이를 통해 참여한 기업들은 향후 시·평가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안내 받을 수 있었다.

/권희성 기자

동물복지 향상 공로 인정

전주동물원, 동물복지 유공 'KAZA 우수동물원상' 수상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한 전주동물원이 동물복지 향상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주동물원은 올해 환경부와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가 주관한 '2025년 동물복지 분야 우수동물원'으로 선정돼 'KAZA 우수동물원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는 전주동물원을 비롯한 국내 110여 개 동물원·수족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윤리적 운영과 복지, 보전, 교육 분야 등의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전주동물원이 지난 2021년 'KAZA 복지혁신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협회로부터 받은 다섯 번째 본상으로, 전주동물원은 이번 수상으로 공영동물원 중 최다인 연속 5회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대표 생태동물원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앞서 전주동물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2024년에는 최우수기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KAZA 기관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주동물원은 지난 1978년 개장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대표적인 공영동물원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단순한 관람 공간'에서 벗어나 '생명존중 교육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전주동물원은 이 과정에서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생태환경 조성 △동물이 행복한 활동을 위

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운영 △공정강화 프로그램 운영 △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메디컬 프로그램 운영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생물다양성 보전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또 한 번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주동물원은 앞으로도 △세계 주요 동물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연과 유사한 서식 환경 조성 및 전시 환경개선 추진 △다양한 동물복지 프로그램 강화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종 보전 대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김종대 전주동물원장은 "이번 수상은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동물원 조성과 동물복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라며 "관람객들을 위한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에 적합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동물의 복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동물원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동물원으로 변화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동물원을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동물복지와 생태 보전, 시민참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 '송년의 날' 행사 열려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6일 외국인 주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년행사인 'Goodbye 25, Welcome 26'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증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국적의 주민 간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 자랑과 미니 콘서트, 우수참여자 시상, 기념 촬영 등 협력과 소통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장기자랑 시간은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과 근로자 등이 함께 어우러지며,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서로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